



전주매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에 참석해 올림픽 유치 기원 화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민 올림픽 유치 열망, 전 세계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다짐대회

2000여명 참여해 “전북 넘어 하나돼 올림픽 유치” 결의
트로트 신동 김태연에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
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 지원위원 48명에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체육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들은 전북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망을 표명했다.

다짐대회는 도립국악원의 전통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도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전북을 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강한 의지를 외쳤다.

결의문에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의 모든 역량과 자원 결집 △전북의 경쟁력을 세계에 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치 활동 전개 △균형발전과 K-컬처, 친환경 올림픽 비전 확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화합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무대 중앙 성화대에 불을 밝히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재차 기원했다.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 행사장은 전북의 도약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또한, 전북 부안 출신 '트로트 신동' 김태연이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돼 특별공연을 펼쳤다. 김태연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올림픽 유치를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행사에 앞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범도민 지원위원회' 위원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원위원회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략적 홍보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며 “크고 작은 의정들이 향후 큰 올림픽이 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강한 자신감으로 “변방의 전북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유치를 도전장을 내밀고 비상 of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며, “도와 전북체육인들의 염원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우리가 꿈꾸는 올림픽은 가장 전북답고, 세계적이며, 지방도시 간 연대와 다채롭고 빼어난 문화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올림픽”이라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타오르는 성화처럼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철문 전북청장 “민생에 타격 주는 범죄에 적극 대응”

김철문 신임 전북경찰청장(사진)이 민생에 큰 타격을 주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전북청장은 11일 취임 후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도박, 약성 사기 및 마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를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 한 번 발생하면 한 가정이 무너진다”며 “어찌 보면 강·절도 범죄보다 더욱 큰 타격이 오기에 끊임없이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경찰 활동의 가장 주요점으로는 ‘경청’과 ‘응답’을 제시했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에듀페이, 모든 학생에 지원

전북교육청, 초1~고3 입학지원·학습지원비 등 지급

교육의 공공성 강화·복지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모든 학생에게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17만5,000여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총 34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학년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했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 지급,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30만원, 중·고등학교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20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15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이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이다.

한편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박청소년은 도내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19 법원 폭동은 법치주의 훼손”

김성수 도의원, 서부지법 폭동 관련 규탄 결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사진)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 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법원 폭동”으로 불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명령이 발부된 이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감행한 폭력 행위이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 집기와 장비, 시설들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판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가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 및 구속조치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법률은 한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 체계”라면서, “사법부의 권능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세력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